



도산서원길 (11.3km)

도산서원길은 스승과 제자가 만나는 사제의 길이다. 퇴계 선생의 생을 함께한 길이며, 퇴계의 후손들이 청빈한 선비의 자세를 지키며 살아온 원촌마을까지. 도산구곡길 어느 구간보다도 퇴계의 숨결이 살아 있는 길이다.

